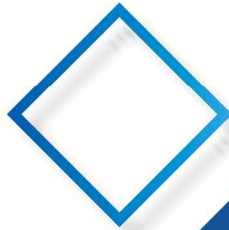


## R&I TRENDS

# EU R&I 주간 브리핑

2025.07.23



# Contents

## ▶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집행위 경쟁력기금, 연구혁신총국과 성장총국이 공동 운영할 것(7.21)
- ② 차기 호라이즌 유럽 및 ECF 예산 구조(제안안)(7.17)
- ③ 집행위의 연구 프로그램 제안에 환영 목소리, 그러나 모호성에 대한 우려 지속(7.17)
- ④ 유럽 연구장관, 코펜하겐에서 핵심 기술과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논의(7.17)
- ⑤ EU 연구장관들, 2028-34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제안에 만족(7.17)
- ⑥ 호라이즌 유럽, 향후 모든 분야에서 '이중용도' 기본 적용될 것(7.17)
- ⑦ 호라이즌 유럽 '문샷'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의 모든 부분과 연계 가능(7.22)
- ⑧ EU 집행위원회, 범용 AI 모델 제공자를 위한 지침 발표(7.18)
- ⑨ 차기 다년재정계획, ERASMUS+ 예산 확대(7.17)
- ⑩ 문화, 미디어, 시민사회를 위한 AgoraEU 프로그램 신설(7.17)

## ▶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① ERC, 연구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워크숍 후속 보고서 발간(7.17)
- ② EIC, 기업-스타트업 협력 관련 플래그십 보고서 발간(7.10)
- ③ (SB펀딩레이더) 국제 공동 연구 주요 공고(7.22)

## ▶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EU 지원 SleepSynapses 프로젝트, 수면의 근본적 원리와 신경학적 기능 규명
- ② (성공사례) EU 지원 ENACT 프로젝트, 범죄 및 테러 대응 위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

# 1. EU 연구혁신 정책 동향

## ① 집행위 경쟁력기금, 연구혁신총국과 성장총국이 공동 운영할 것(7.21)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연구혁신총국(DG RTD)과 성장총국(DG Grow)이 유럽경쟁력기금(ECF)을 공동으로 운영할 것을 발표
  - 이는 호라이즌 유럽과 ECF 간의 긴밀한 연계와 호라이즌 공동연구 예산 758억 유로 중 682억 유로를 ECF가 관리하겠다는 제안을 반영한 것
  - 정치적 차원에서는 연구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과 산업 전략 담당 세주르네 집행위원이 감독
  - DG RTD와 DG GROW는 4,100억 유로의 ECF를 함께 관리하게 됨
  - 또한 디지털, 보건, 바이오경제, 농업, 국방 및 우주 등을 다루는 정책별 국장들도 자문을 받게 됨
  - 연구혁신총국의 역할은 공동연구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집행위는 새로운 기금을 통해 기초연구에서 시장 혁신까지 연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를 위해 모든 분야에서 정책 중심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
- 그러나 호라이즌 유럽 관련 규정과 ECF 규정 모두 거버넌스 구조에 대한 세부 내용이 부족해 불확실성이 존재
  - 제안서에는 공동연구를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은 '신흥기술 관측소 (observatory of emerging technologies)'를 통해 정보를 제공받는다 명시. 이는 기금의 방향을 결정하는 ECF 전략 이해관계자 이사회에 정보를 제공할 것. 그러나 여전히 세부적인 내용이 부족
  - 제안서는 ECF가 집행위와 회원국 대표로 구성된 위원회에 의해 집행될 것임을 언급. 이는 일반 위원회와 4개 각 우선순위 분야(청정전환·산업 탈탄소화, 보건·바이오경제·생명공학, 디지털, 회복력·국방·우주)에 해당하는 위원회, 추가로 회복력·우주·안보산업 관련 위원회로 운영 예정

- 이 위원회들은 ECF 워크 프로그램을 결정하며, 호라이즌 유럽 공동연구 공모에 전용 섹션이 마련될 것
- 한 집행위 관계자는 4개 우선순위를 다루는 각 정책 창구에 대해 하나의 통합된 단일 워크프로그램을 갖게 될 것이며, 여기서 연구혁신을 위한 파트와 배포를 위한 파트가 있을 수 있다고 말함

○ 모호한 거버넌스 조항에 대해 연구계는 우려를 표명

- ECF가 필라2 공동연구 기금 대부분을 지원하게 되면서, 대학과 연구 기관들은 정책 중심의 기금 운영으로 초기 단계 공동연구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으며, 단일 규정과 공동 거버넌스가 호라이즌 프로그램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 제기
- 이 제안은 유럽의회 및 회원국의 승인 과정에서도 반대에 부딪힐 수 있음
- 독일과 스페인 주도하에 9개국 연구장관들은 독립적 공동연구 필라유지를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며, 이후 프랑스도 이에 동참
- 차기 호라이즌 유럽과 ECF에 대한 최종 협상은 EU 정부와 유럽의회 간 수개월간 진행될 예정이며, 2028년까지 최종 결과가 발표될 것

출처	<a href="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industry/european-competitiveness-fund-be-jointly-run-commission-research-and-industry">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industry/european-competitiveness-fund-be-jointly-run-commission-research-and-industry</a>
----	---

## ② 차기 호라이즌 유럽 및 ECF 예산 구조(제안안)(7.17)

-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8~2034년 차기 호라이즌 유럽 연구 프로그램 예산을 현재의 약 두 배인 1,750억 유로로 증액 제안
  - 유럽혁신위원회(EIC) 예산은 3배 확대(136억→387억 유로) 예정이며, 공동연구 예산은 절반가량 증가(535억→758억 유로)
  - **(필라1)** 기초연구 예산은 250억 유로에서 440억 유로로 확대, ERC와 MSCA 프로그램이 수혜 예정
  - **(필라2)** 공동연구는 535억 유로에서 758억 유로로 증액, 이 중 682억 유로는 경쟁력 분야(ECF)로, 76억 유로는 사회 문제 연구로 배분
  - 경쟁력 분야는 청정전환(253억), 생명과학(196억), 디지털 리더십(168억), 회복력·안보·방위·우주(64억) 4대 우선 영역으로 구분
  - 사회 분야 연구는 이민, 허위정보, 민주주의, 사회·경제 전환 등 글로벌 도전 과제에 초점을 둔 상향식 연구에 자금을 지원할 것
  - 현재 호라이즌 유럽 예산과 비교하면 생명과학 분야는 소폭 증액과 개편이 이루어질 예정(현재 보건 연구 예산은 80억 유로이며, 바이오 경제·식품·농업·기타 주제에 별도로 90억 유로 배정)
  - 현재 기후·에너지·모빌리티 분야에 150억 유로 배정된 것에 비해 청정 전환에 대한 예산이 대폭 증액
  - 디지털·산업·우주 클러스터에 책정된 150억 유로는 디지털 리더십 확보를 위한 새 예산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됨
  - **(필라3)** 혁신 분야 예산은 136억 유로에서 387억 유로로 거의 3배 증가. 대부분 EIC 지원금 및 지분투자에 사용
  - 유럽혁신기술연구소(EIT)와 호라이즌 유럽 미션 프로그램은 제안에서 비중이 축소되었으며, 미션은 2030년까지만 자금 지원 예정
  - **(필라4)** 유럽단일연구공간(ERA) 예산은 34억 유로에서 162억 유로로 증가. 이는 주로 연구인프라 기금이 필라1에서 필라4로 이동했기 때문이며, 참여확대 프로그램(Widening) 예산도 증액

○ ECF 총예산은 4,100억 유로로, 이 중 호라이즌 유럽에 1,750억 유로, 나머지 2,340억 유로는 기타 지원 프로그램에 배분

- ECF 우선 영역은 청정전환·산업탈탄소화(262억+호라이즌 유럽 253억), 보건·생명공학·농업·생명경제(204억+호라이즌 유럽 196억), 디지털 리더십(515억+ 호라이즌 유럽168억), 회복력·안보·방위 산업 및 우주 (1,252억+호라이즌 유럽 64억)
- 기타 비부문별 사업(InvestEU 보증, 프로젝트 자문, 중소기업 협력, 기술 인력 개발)에 110억 유로 배정

○ 차기 호라이즌 유럽 및 ECF 예산 구조(제안안)는 다음과 같음:

구분	현재 HE예산 (억€)	차기 HE 제안예산 (억€)	주요특징
Pillar 1 기초연구	250	440	ERC·MSCA 대폭확대, 기초연구강화
Pillar 2 협력연구	535	758	경쟁력(682억) + 사회분야(76억)
청정전환	-	253	산업탈탄소화 중점
생명과학	-	196	보건·생명공학·농업통합 강화
디지털리더십	-	168	디지털·산업·우주 연계
회복력·안보·국방·우주	-	64	안보·방위 중심 확대
사회분야	-	76	이민·허위정보·민주주의 등 대응
Pillar 3 혁신	136	387	EIC 예산 3배 확대, 스타트업 지원
Pillar 4 ERA	34	162	연구 인프라 및 참여확대국 지원 확대

ECF 예산 항목	예산(억€)	세부내용
청정전환·산업탈탄소화	262 + 253	ECF 자체(262억), Horizon 연계(253억)
보건·바이오경제·생명공학·농업	204 + 196	총 400억 유로
디지털리더십	515 + 168	총 683억 유로
회복력·안보·국방·우주	1,252 + 64	총 1,316억 유로
기타(InvestEU, SME, 기술인력 등)	110	비부문별지원
<b>ECF 총 예산</b>	<b>4,100</b>	호라이즌 유럽(1,750억) + 기타(2,340억) 포함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planning-fp10/horizon-europe-budget-double-eu68b-will-remain-competitiveness-fund>

### ③ 집행위의 연구 프로그램 제안에 환영 목소리, 그러나 모호성에 대한 우려 지속(7.17)

- 유럽 연구계는 EU 집행위원회가 7월 16일 발표한 1,750억 유로 규모의 호라이즌 유럽 후속 프로그램 제안을 환영하나, 유럽경쟁력 기금(ECF)과의 연계성 및 간소화 계획에 대한 우려 표명
  - 자하리에바 연구혁신 담당 집행위원은 차기 프레임워크 프로그램(FP)에 대해 “연구와 혁신을 EU 경제 및 투자 전략의 핵심에 둘 것”이라고 발표
  - 유럽의회 엘러 의원은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예산을 두 배로 늘리고 프로그램 독립성을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에 대해 긍정 평가
  - 그러나 프로그램의 법적 세부 사항이 줄어들고 ECF와의 ‘밀접한 연계’가 강조된 새로운 접근 방식은 입법 과정에서 명확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지적
  - 특히 공동 연구와 혁신 활동이 ECF의 워크 프로그램에서 세부적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어, 이는 Draghi 보고서, Heitor 보고서 및 의회의 입장과 반대되는 방향이라는 우려 제기
  - 간소화를 목표로 한 세부 법안 감소가 오히려 법적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으며, ECF와의 단일 규정집 및 립섬편당 방식 확대가 실제 간소화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
  - Grudler 의원은 예산 두 배 증가를 환영하면서도, ECF와의 명확한 연계 정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특히 독립적인 EU 우주 프로그램을 위한 별도의 예산 항목이 없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하여 전략적 분야인 우주 정책에 명확한 예산 책정이 필요하다고 주장
  - Heitor 전 포르투갈 과학부 장관도 우주 및 국방 구성 요소의 모호성을 지적하면서도, 해당 분야의 예산 증가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함. 다만, 유럽연구위원회(ERC)의 거버넌스 변경 가능성 등 일부 세부 제안이 호라이즌 유럽의 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

- 유럽대학협회(EUA)의 Crowfoot 사무총장은 호라이즌 유럽의 독립성과 예산 증액을 고무적으로 평가하며 ERC 및 마리퀴리 액션 등 핵심 프로그램의 상향식 접근 유지에 특히 환영 의사를 밝히며, 필라2의 공동 연구 지원 유지도 긍정 평가. 다만, ECF와의 공동 거버넌스가 프로그램의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
- 유럽연구대학연맹(LERU)의 Deketelaere 사무총장은 독립적이고 확대된 연구 프로그램 제안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연구자들의 참여 확대 필요성을 제기
- Deketelaere는 ERC 의장의 임기 축소 및 마리퀴리 액션의 방향성 증가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필라2와 ECF 연계의 투명성 부족이 불필요한 복잡성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또한 영국과 스위스와 같은 국가들의 프로그램 가입 절차 간소화가 제안되지 않은 점을 아쉬워함을 표명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planning-fp10/praise-commissions-research-programme-proposal-concerns-linger-over-its>

#### 4 유럽 연구장관, 코펜하겐에서 핵심 기술과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논의(7.17)

- 2025년 7월 16~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EU 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주관으로 EU 회원국 및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스위스, 영국의 연구혁신 담당 장관들이 참석한 비공식 회담 개최
  - 회담은 유럽의 경쟁력, 전략적 자율성, 친환경 및 디지털 전환을 위해 필수적인 핵심 기술 발전과 차기 다년재정프레임워크(MFF)에서 연구혁신 노력을 위한 유럽의 역할 논의에 집중
  - 덴마크 에겔룬드 고등교육 및 과학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했으며, EU 집행위원회 대표단은 자하리에바 집행위원과 DG 연구혁신총국장 르메트르가 이끌었음
  - 첫째 날 회의에서는 유럽이 인공지능, 양자 컴퓨팅, 생명공학, 우주기술 등 주요 기술 발전을 위해 공동 노력의 필요성을 강조
  - 코펜하겐 대학의 라센 총장의 '사회적 인공지능 국가센터(National Centre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Society)' 및 기타 구체적 사례 발표 이후, 민관 협력의 중요성과 국경을 초월한 협력 및 공동 연구 역량을 통한 세계적인 연구 허브 구축 방안 논의
  - 보다 심도 있고 역동적인 논의를 위해 전체 회의 후 소규모 그룹별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몇몇 장관이 주요 결과를 최종 전체 회의에서 발표
  - 둘째 날 회의에서는 차기 MFF 하의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 (호라이즌 유럽)의 재정 지원 방안에 대한 논의 진행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이 호라이즌 유럽을 독립적인 프로그램으로 유지하며 별도의 예산을 책정하는 내용의 집행위 제안서를 발표한 뒤, 소규모 그룹별 정치적 논의가 계속됨
  - 집행위 제안서가 회의 직전에 배포되어 세부적 평가가 어려웠으나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반응

- 핵심 논의 주제는 특히 필라2와 유럽경쟁력기금(ECF) 간의 거버넌스 및 참여 규칙 연계 문제였음
- 오스트리아를 비롯한 다수 국가들은 독립적인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유럽단일연구공간(ERA)의 확고한 통합 및 유럽의 지정학적 도전과 평화 및 안보 문제 관련 연구 강화를 제안서에 반영한 점을 높게 평가
- 차기 공식 EU 경쟁력 이사회 회의는 2025년 9월 30일 브뤼셀에서 열릴 예정

출처

<https://era.gv.at/news-items/european-ministers-discuss-critical-technologies-and-the-future-of-ira-framework-programme-in-copenhagen/>

## 5 EU 연구장관들, 2028-34년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 제안에 만족(7.17)

- EU 연구혁신 장관들은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2028~2034년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에 대해 “매우 만족”한다고 덴마크 연구장관이 밝힘
  - 덴마크 에겔룬드 고등교육 및 과학부 장관은 7월 17일 기자회견에서 장관급 비공식 회의 결과를 요약하며, 독립적 프로그램 유지와 예산 대폭 증액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전달
  - 에겔룬드 장관은 호라이즌 유럽이 독립 프로그램으로 유지된다는 점과 함께 상당한 규모의 예산 증액 제안을 환영
  - “제안서에 대한 EU 이사회의 전반적인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며, 공동 과학 노력이 유럽이 직면한 도전 과제 해결에 필수적이라는 공감대 형성”이라고 언급
  - 특히 연구 성과의 시장 전환 필요성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기술 발전에 대한 강조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평가
  - 자하리에바 집행위원도 독립적 프로그램과 예산안에 대해 연구장관들로부터 큰 지지를 받았다고 언급
- 연구계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세부 사항에 대한 우려 표명
  - Science Europe은 “예산 증액은 환영하지만, 연구계가 요구한 2,000억 유로에 미치지 못한 점과 예산의 명확한 배정이 보장되지 않은 점에 유감”이라고 밝혔으며, 유럽경쟁력기금(ECF)과의 연계가 명확하지 않아 연구혁신 예산과 우선순위가 호라이즌 유럽의 명확한 권한 하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
  - 유럽신진대학네트워크(YERUN)는 EU가 연구, 인재 및 혁신을 경쟁력과 글로벌 리더십의 핵심으로 보고 있음을 나타낸 긍정적 신호로 평가하

였으며, 프로그램 간소화와 더불어 후발 국가들을 위한 새로운 지원 카테고리 도입을 환영

- 다만, ECF와의 연계가 전략적 산업 목표와 독립적이고 우수성 중심의 연구 간 경계를 모호하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며, 목적과 거버넌스의 명확한 분리가 필요하다고 강조
- 영국 러셀 그룹(Russell Group)은 EU의 초기 제안이 국경을 초월한 협력과 우수성 중심의 연구를 강력히 지지하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한다고 평가
- 사이버보안으로부터 탈탄소화까지 공동 도전과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점을 긍정적으로 언급하면서도, 최종 프로그램 확정까지 아직 갈 길이 멀며 EU 회원국과 현 호라이즌 준회원국들의 협력 최대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임

출처

[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politics/2025/7/Research-ministers—happy--with-2028-34-Horizon-Europe-proposal.html?utm\\_medium=email&utm\\_source=rpMailin&utm\\_campaign=clvRpNewsDaily\\_2025-07-18](https://www.researchprofessional.com/0/rr/news/europe/politics/2025/7/Research-ministers—happy--with-2028-34-Horizon-Europe-proposal.html?utm_medium=email&utm_source=rpMailin&utm_campaign=clvRpNewsDaily_2025-07-18)

## 6 호라이즌 유럽, 향후 모든 분야에서 '이중용도' 기본 적용될 것(7.17)

- EU 집행위원회는 차기 연구혁신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에서 모든 분야에 걸쳐 이중용도(dual-use) 프로젝트를 기본적으로 지원할 계획
  - EU 연구혁신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은 7월 17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개최된 EU 연구장관 비공식 회담 이후 기자회견에서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
  - 이는 과거 40년 동안 유지된 프레임워크 프로그램에서 민간 분야 프로젝트만 지원해 온 제한 규정을 공식적으로 폐지한 것으로, 이전까지는 유럽혁신위원회(EIC)에만 국한되었음
  - 새로운 제안에 따라, EIC는 미국의 국방고등연구계획국(DARPA)을 모델로 하여 국방 및 이중용도 스타트업 지원을 포함하게 됨
  - 특히, 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2는 유럽경쟁력기금(ECF)의 네 가지 정책 "창구"를 중심으로 구성되며, 이 중 하나는 탄력성 및 안보, 방위산업 및 우주 분야를 전담
  - 집행위의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EIC의 예산은 현재의 3배로 증가하며, "고위험·고수익 프로젝트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관리자의 권한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자하리에바 집행위원이 강조
  - 자하리에바는 전략적 우선순위 중심의 신규 접근에도 불구하고, 우수 과학 분야에 헌정된 필라1에서는 상향식 연구 지원을 지속할 것을 강조
  - "독립적인 유럽연구위원회(ERC)는 정치적 간섭 없이 과학자들이 과학을 위해 운영하며, 연구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라고 밝힘
- 차기 호라이즌 유럽 프로그램의 총 예산은 현행 프로그램의 거의 두 배에 가까운 7년간 1,750억 유로로 증액 제안

- 자하리에바는 현재 호라이즌 프로그램에서 10건 중 약 7건의 우수한 제안서가 예산 부족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러한 제안들은 유럽인의 삶을 바꿀 잠재력이 있지만 예산 부족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
- 또한 기초연구에 대한 지원을 늘릴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특히 유럽이 뛰어난 과학적 역량 덕분에 글로벌 리더십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양자 산업을 예로 들
- 현 EU 이사회 의장국인 덴마크의 에겔룬드 고등교육과학부 장관은 집행위의 호라이즌 유럽 예산 확대 제안을 적극 환영하며, “호라이즌 유럽이 독립 프로그램으로 존속하고, 상당한 규모의 예산으로 유지되는 것이 기쁘다”고 언급
- EU 예산 협상 과정에서 각 필라 간의 예산 분배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있을 예정

출처	<a href="https://sciencebusiness.net/news/dual-use/horizon-europe-will-be-dual-use-default-zaharieva-says">https://sciencebusiness.net/news/dual-use/horizon-europe-will-be-dual-use-default-zaharieva-says</a>
----	---

## 7] 호라이즌 유럽 ‘문샷’ 프로젝트, 호라이즌 유럽의 모든 부분과 연계 가능(7.22)

- 차기 호라이즌 유럽 제안은 유럽경쟁력기금(ECF)과의 연계 및 새로운 ‘문샷(moonshot)’ 프로젝트 계획과 관련해 새로운 의문을 제기
  - 제안서에 따르면 문샷 프로젝트는 연구혁신부터 실증, 개발, 배포까지 연속적 자금 지원 구조를 목표로 하며, 유럽 경쟁력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에 기여
  - 기존에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설계되었던 EU 미션은 2030년까지 필라2에서 지원되지만, 문샷 관련 내용은 호라이즌 유럽 규정 본문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이는 호라이즌 유럽과 ECF, 민간 및 국가 자금 등 다양한 재원을 동원할 것으로 예상됨
  - 호라이즌 유럽의 필라2 경쟁력 분야 예산(ECF 관리)을 활용할 수 있음. 경우에 따라 유럽 파트너십을 구축할 가능성도 있으며, ERC, MSCA, EIC 등 프로그램도 참여 가능
  - 결과적으로, 문샷 프로젝트는 전용 예산 없이 유연하게 편성되며, 호라이즌 유럽 예산에서 차지할 비중은 미정
- 제안에 포함된 문샷 후보 주제(최종 확정 아님)
  - CERN 미래 원형 충돌기(Future Circular Collider) 건설 지원
  - CO2 배출 제로 항공기 및 자동화 항공 교통관리 개발
  - 양자 컴퓨터 구축 및 일상 통합
  - 차세대 인공지능 개발 및 산업 적용
  - 연구 데이터 주권 확보
  - 자동화 교통 및 모빌리티 혁신(안전·효율·포용성 향상)
  - 인간 재생 의학 혁신 치료제 개발
  - 상용 핵융합 발전소 달성(2034년 전력망 연계)
  - 유럽의 달 탐사 접근성 확대(차세대 우주 수송·로봇기술)
  - EU 수질 오염 제로 달성(침단수처리·담수화·수자원 재활용)
  - 지구 내부 탐사 및 해양 관측 기술 개발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european-research-council/all-parts-horizon-europe-may-contribute-post-2027-moonshot>

## 8 EU 집행위원회, 범용 AI 모델 제공자를 위한 지침 발표(7.18)

- EU 집행위원회는 2025년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AI법의 의무사항 준수를 돕기 위한 상세한 [지침](#)을 공식 발표
  - 이번 지침은 AI 가치사슬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명확하고 실질적인 법적 가이드를 제공하며, 범용 AI 행동 강령을 구체적으로 보완
  - 집행위원회 기술주권·안보·민주주의 담당 비르쿠넨 부집행위원장은 이번 지침을 통해 스타트업부터 글로벌 대기업까지 다양한 규모의 AI 기업들이 법적 리스크 없이 안전하고 투명한 혁신을 이끌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유럽의 기본 가치에 부합하는 AI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
  - 이번 지침에서 명시된 범용 AI 모델은 최소  $10^{23}$  FLOPS(부동소수점 연산) 이상의 연산 자원을 활용하여 훈련된 고성능 모델로, 언어(텍스트 또는 오디오)를 생성하거나 텍스트-이미지 변환, 텍스트-비디오 변환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로 정의
  - 지침은 '제공자'와 '시장 출시'의 개념과 그 기준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의하고, 특히, 투명성 조건을 충족하는 무료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로 공개된 모델에 대한 면제 조항을 명시
  - 또한, AI 기업들이 범용 AI 행동 강령을 따랐을 때의 법적 효력과 기대되는 준수 요건을 상세히 설명
  - 기술적으로 가장 진보했거나 영향력 있는 범용 AI 모델 제공자들에게 적용될 특별한 의무사항을 더욱 구체적으로 제시(특히 기본권, 안전위험, 모델 통제력 상실 가능성이 큰 시스템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모델 제공자 대상)

출처

<https://digital-strategy.ec.europa.eu/en/news/commission-publishes-guidelines-providers-general-purpose-ai-models>

## 9 차기 다년재정계획, ERASMUS+ 예산 확대(7.17)

### ○ 집행위는 2028~2034년 ERASMUS 예산을 408억 유로로 확대

- 집행위는 2021~2027년 262억 유로에서 2028~2034년 408억 유로로 확대 제안. 이는 EU 글로벌 유럽(Global Europe) 기금 예산으로 보완될 것
- 강화된 Erasmus+는 '스킬 연합(Union of Skills)'의 핵심축으로 교육 이동성, 연대, 포용성을 중심 가치로 유지할 것
- 제안은 인도적 지원 활동을 포함하도록 프로그램 범위를 확대하며, 이를 통해 EU가 자금을 지원하는 모든 청년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에 대한 원스톱숍이 구축되어 이러한 기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
- Erasmus+는 40년에 걸쳐 1,600만 명 이상에게 개인적·전문적 성장을 제공한 EU의 대표적 성공 사례로 평가되며, 프로그램 참가자는 비판적 사고력, 회복력, 학업 성취 등에서 향상된 결과를 보이며 이러한 긍정적 효과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

출처 <https://erasmus-plus.ec.europa.eu/news/commission-proposes-new-erasmus-beyond-2027>

## 10 문화, 미디어, 시민사회를 위한 AgoraEU 프로그램 신설(7.17)

- 집행위는 2028~2034년 EU 예산 제안에서 문화·미디어·시민사회를 위한 새로운 AgoraEU 프로그램 신설을 제안
  - AgoraEU 프로그램은 유럽 시민 역량 강화와 회복력 있는 사회 구축을 목표로 하는 EU의 새로운 정책 제안임
  - 문화, 창의 산업과 민주주의, 시민권, 권리와 가치 보호를 핵심 영역으로 다루며, 문화 및 언어 다양성과 유산 촉진, 문화·창의 부문 경쟁력 강화 (특히 미디어·시청각 산업), 예술 및 미디어 자유 보장, 평등·시민 참여·권리와 가치 보호 및 증진을 주요 목표로 함
  - 프로그램은 Creative Europe - Culture, MEDIA+, Democracy, Citizens, Equality, Rights and Values (CERV+) 세 축으로 구성
  - 이 중 Creative Europe - Culture 축은 현재 Creative Europe(2021~2027) 문화축의 성과를 기반으로, 차기 Culture Compass for Europe 목표에 맞춰 기회를 확대할 예정
  - 이는 문화·창의 산업이 직면한 핵심·신흥 과제 대응과 예술적 자유 존중 속 창의 역량 강화를 통해 예술가와 전문가의 활동 확대, 국경 간 다양한 문화 콘텐츠 유통 및 포용적 접근성을 촉진
  - 또한, 국제 문화 교류와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문화정책 개발 및 데이터 수집을 지원해 문화 표현과 유산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확산할 것

출처 <https://culture.ec.europa.eu/news/eu-budget-2028-2034-new-agoraeu-programme>

## 2. EU 공모 현황 및 보고서 등

### 1 ERC, 연구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 워크숍 후속 보고서 발간(7.17)

- 유럽연구위원회(ERC)는 지난 4월 10일 개최한 유럽 경쟁력 강화 관련 고위급 워크숍의 후속으로 보고서를 발간
  - 마리아 랩틴 ERC 의장이 주최한 비공개 워크숍에는 노벨상 수상자 벤 페링가, 비르쿠넨 EU 부집행위원장, 스타트업·연구혁신 담당 자하리에바 집행위원, 유럽의회 및 회원국 정책결정자, 산업계 인사, ERC 수혜 연구자 등이 참석
  - 워크숍은 EU 경쟁력 저하에 대한 위기감을 배경으로 열렸으며, Draghi 보고서와 폰테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의 발언처럼 연구혁신을 유럽경제의 핵심에 두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
- 보고서는 유럽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연구 역량 활용과 구조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
  - 보고서는 유럽이 단일시장을 완성하고, 장기적이고 고위험 연구 자금을 확대하고, 산학 협력을 강화하며, 공유 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위험 감수를 장려하고, 인재 다양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주요 내용을 담음
  - 참가자들은 와해적 혁신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연구 투자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며, 근본 연구가 혁신의 기반임을 강조
  - 워크숍에서는 기초연구 강화, 산학 협력 확대, 단일시장 완성, 데이터 인프라 개선 리스크 문화 및 인재 육성 등에 관한 실행 가능 조치가 제시됨
  - 보고서에서 제시된 조치들은 EU의 기존 정책 노력과 일부 연계되며, 전략적이고 지속적인 조치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근거로 작용할 전망

출처 <https://erc.europa.eu/news-events/news/voices-industry-policy-and-science-align-driving-europes-competitiveness>

## ② EIC, 기업-스타트업 협력 관련 플래그십 보고서 발간(7.10)

- 유럽혁신위원회(EIC)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스타트업-대기업 협력이 유럽의 딥테크 스케일업과 산업 전환을 주도함을 강조
  - 동 보고서는 EU 스타트업·스케일업 이니셔티브 목표를 뒷받침하며, 2024년 Draghi 보고서가 제시한 연구-혁신-시장진출 간 연계 강화 필요성과 유럽의 기술 리더십 및 전략적 자율성 확보라는 EU 집행위 목표에 부합
  - 2017년 출범한 EIC 기업 파트너십 프로그램(CPP)은 유럽 전역에서 1,500건 이상의 스타트업-대기업 협력을 성사시켰으며, 120개 이상의 주요 기업과 EIC 지원 스타트업 간 100건 이상의 비즈니스 계약을 도출. 또한 지속적이고 성과 지향적인 협력을 위해 매치메이킹, 코칭, 후속 지원을 제공
  - 보고서는 프로그램이 높은 자본 요건, 긴 상용화 기간, 산업 인프라 접근성 부족 등 딥테크 스타트업의 난관을 대기업 협력으로 극복하도록 돕고, 대기업에는 혁신 기술에 대한 조기 접근 기회를 제공함을 보여줌
- 보고서가 제시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 효과적인 협력은 전략적 연계, 상호 헌신 및 가치 창출, 기술, 초기 실험 (파일럿·개념증명) 등 4가지 핵심축에 기반
  - 기존의 일회성 혁신 이벤트보다 CPP 모델이 지속적 성과 창출에 효과적
  - 대면 방식 단일기업 참여는 계약 성과가 높은 반면, 온라인·다수 기업 참여 방식은 도달 범위와 가시성 확대에 유리
  - CPP 참여 기업의 92%가 높은 만족도를 달성하며 성장 및 파트너십 촉진 효과를 입증
- ※ 2017년 이후 CPP는 80건의 협력 이니셔티브를 개최했고 ABB, Airbus, BMW, CaixaBank, Enel, L'Oreal, Medtronic, Roche, Siemens Energy, Telefonica 등 120여 개 대기업이 참여했으며 혁신적 스타트업·스케일업을 사업, 조달, R&D에 통합하거나 투자하려는 개방형 혁신 성향 대기업을 추가 모집 중

출처 [https://eic.ec.europa.eu/news/european-innovation-council-publishes-flagship-report-corporate-startup-collaboration-2025-07-10\\_en](https://eic.ec.europa.eu/news/european-innovation-council-publishes-flagship-report-corporate-startup-collaboration-2025-07-10_en)

### 3 [SB펀딩레이더] 국제 공동 연구 주요 공고(7.22)

- 국제 공동 공모는 호라이즌 유럽 등을 통해 연구혁신 협력을 촉진하는 유럽연합의 주요 메커니즘임

#### 호라이즌 유럽 - EU 반도체 국제 협력 공모

- 개요: 일본, 한국, 대만, 싱가포르, 미국, 캐나다, 인도 등 주요 반도체 국가와의 EU 국제 협력 지원
- 일정: 2025년 11월 12일 마감
- 예산: 총 300만 유로

#### 한국연구재단(NRF) - 한-EU 공동연구 지원 프로그램

- 개요: 한국 연구자의 호라이즌 유럽 필라2 프로젝트 참여 지원
- 일정: 2025년 7월 30일 마감

#### 스웨덴 Vinnova - 보건·생명과학 협력 펀딩

- 개요: 스웨덴 연구자와 미국·영국·싱가포르 파트너 간 보건·생명과학 협력 프로젝트 지원(산학연 및 공공부문 포함)
- 일정: 2025년 9월 11일 마감
- 예산: 최대 SEK 1,000,000 (약 9만 유로) / 12개월 프로젝트

#### 독일-이스라엘 Eureka 공동 공모

- 개요: 독일과 이스라엘 기업 주도 공동 R&D, 연구기관도 참여 가능
- 일정: 2025년 7월 29일 마감

#### 독일-대만 산업주도 R&D 공모

- 개요: 독일-대만 기업 상용화 중심 R&D 프로젝트 지원
- 일정: 2025년 9월 30일 마감

#### IraSME 다국적 SME 혁신 펀딩

- 개요: 오스트리아, 브라질, 체코, 플랑드르(벨기에), 독일, 룩셈부르크, 스위스, 튀르키예, 왈로니(벨기에) 등 참여국 중소기업 대상 국제 공동연구 지원
- 일정: 2025년 9월 24일 마감

출처

<https://sciencebusiness.net/news/r-d-funding/partnerships/weeks-round-joint-international-rd-calls>

### 3. EU 연구성과

#### ① [성공사례] EU 지원 SleepSynapses 프로젝트, 수면의 근본적 원리와 신경학적 기능 규명

- EU가 지원한 SleepSynapses 프로젝트는 수면이라는 보편적이면서도 이해하기 어려운 생물학적 현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 제공
  - 수면은 동물들이 무방비하고 비생산적인 상태로 보이게 하는데, 왜 이러한 상태가 필요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목적을 밝히기 위한 연구 진행
  - 본 연구는 "시냅스 항상성 가설"에 따라, 각성 시 학습과 경험으로 인해 과부하 된 뇌 시냅스가 수면을 통해 재설정되어 균형을 유지하고 뇌 기능을 최적화한다고 가정
  - 벨기에 VIB-KU Leuven 뇌 및 질병 연구센터의 Liu 조교수 주도하에, SleepSynapses 프로젝트는 첨단 유전학 모델과 최신 기술을 활용하여 수면이 신경 세포 간 연결인 시냅스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
  - 기존 쥐를 이용한 연구 대신 유전적으로 단순한 초파리(*Drosophila melanogaster*)를 연구 대상으로 활용하여, 동일 시냅스가 다양한 조건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정밀하게 연구 가능
  - 연구팀은 수면 및 수면 부족에 의해 유도되는 시냅스 변화를 명확히 밝혀냈으며, 단일 세포 전사체학을 사용하여 수면과 각성이 다양한 뇌 세포의 유전자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
  - Nature Neuroscience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 지금까지 보조적 역할로만 여겨졌던 비신경세포인 교세포가 수면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핵심이라는 점을 발견
  - Liu 박사는 교세포가 수면-각성 주기를 조절하는데 이전까지 알려지지 않은 방식으로 관여하고 있으며, 신경학에서 과소평가 된 이 영역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

- 또한 연구팀은 시냅스 가소성이라는 메커니즘이 기억 형성과 학습에 필수적임을 확인하고, 뇌가 특정 시냅스를 빠르게 조정하여 균형을 유지하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
- 이러한 새로운 시냅스 조정 과정은 주로 뉴런의 신호 전달부에서 일어나며, 각성 상태에서 발생하여 뇌 활동과 휴식, 학습의 관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연구팀은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장비 부족 및 공급망 혼란과 같은 어려움을 극복하며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도출하였고, 새로운 세대의 초기 연구자들을 육성하여 학계로 진출시키는 성과도 달성
- SleepSynapses 프로젝트는 수면의 세포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으며, 수면 장애와 인지 건강에 대한 새로운 관점 제공
- Liu 박사는 “수면이 단순히 우리 개인에게 어떤 의미인지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성하는 세포들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한 이해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고 평가
- 또한, 기초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초파리와 같은 간단한 모델을 통한 연구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는 기본 원리를 제공한다고 강조

**SleepSynapses** 프로젝트

- 기간 : 2018.02 ~ 2024.01
- 예산 : 약 1,706,250.00 유로 (EU 100% 지원)
- 총괄 : VIB VZW (벨기에)

출처

<https://projects.research-and-innovation.ec.europa.eu/en/projects/success-stories/all/investigating-mysteries-sleep>

## ② [성공사례] EU 지원 ENACT 프로젝트, 범죄 및 테러 대응 위한 지식 네트워크 구축

- EU의 지원을 받은 ENACT 프로젝트는 범죄와 테러 대응(Fight against Crime and Terrorism, FCT)을 위한 연구혁신 지식을 교환하고, 혁신적인 해결책의 도입을 촉진하기 위해 유럽 차원의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
  - 현재 EU 내 보안 분야 연구혁신은 매우 분절화되어 있어 효과적인 범죄 및 테러 대응에 장애 요소로 작용
  - ENACT 프로젝트는 보안 R&I 분야의 기술 및 역량 부족과 이해관계자 간 협력 부족 등의 문제를 식별하고 이를 보완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
  - 프로젝트는 최첨단 보안 솔루션의 도입을 촉진하고 EU의 보안 관행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범죄 및 테러 대응 R&I 생태계 내 의사결정자들이 전문가 중심의 연구와 이해관계자 간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포르투갈 법무부 산하 국가 범죄 수사 기관 Polícia Judiciária의 연구혁신 매니저이자 ENACT 프로젝트 조정자인 Alegria는 연구 결과와 실제 적용 간 격차를 해소하여 최종 사용자, 정책 입안자 및 전체 보안 생태계에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설명
- ENACT는 내부 지식 관측소와 외부 이해관계자를 연결하여 협력과 지속 가능한 정보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적인 지식 네트워크를 구축
  - 2023년 9월 출범 이래, 52개국 1,000개 이상의 이해관계자를 포함하는 범죄 및 테러 대응 이해관계자 지도 및 지식 기반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1,100건 이상의 데이터를 통합
  - 또한 역량, 기술, 시장 동향, 윤리적·법적·사회적 고려 사항을 담은 지도를 제작하여 각 영역의 주요 트렌드를 요약하고, 보안 연구 개발 현황 및 시장 개요에 관한 보고서를 수차례 발표

- 프로젝트 첫째 종료 시점에는 그동안의 성과를 발표하고 범죄 및 테러 대응 프로젝트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가능성을 강조하는 행사를 개최하여, 120명 이상의 다양한 기관 관계자가 참여하며 높은 관심을 보임
- 향후 ENACT 프로젝트는 주요 이슈에 대한 맞춤형 보고서를 계속해서 발간하고 최신 동향을 반영한 지도를 연 2회 업데이트할 예정이며, 혁신적인 보안 솔루션의 도입 촉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범죄 및 테러 대응 생태계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Alegria는 “ENACT 프로젝트가 EU의 범죄 및 테러 대응 역량 강화에 지속 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

#### ENACT 프로젝트

- 기간 : 2023.09 ~ 2026.08
- 예산 : N/A (EU 1,912,794.13 유로 지원)
- 총괄 : Ministerio da Justica (포르투갈)

출처

<https://cordis.europa.eu/article/id/459651-knowledge-network-helping-in-the-fight-against-crime-and-terrorism>